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6.02(금) ~ 2023.06.08(목)

제공일시 2023 06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6.02(금) ~ 2023.06.08(목)

제공일시 2023 06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플라스틱 뒤덮힌 지구...국제규제 협상초안 11월에 나온다

-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닷새간 열린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NIC2) 회의 결과,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초안을 올해 11월까지 나올 것으로 보임
-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앞으로 협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각국의 입장을 반영한 초안을 11월 3차 회의(NIC3) 전까지 만들기로 했음
- 이번 회의에는 17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1600명이 참석했음 한편, 환경부 등은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NIC5)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올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3차 회의와 내년 상반기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4차 회의에 이어 내년 하반기 한국 회의에서 협약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임

(한겨레, 2023.06.03) 남종영 기자

(뉴스1, 2023.06.08) 황덕현 기자

2. 美, 청정 수소연료 생산 로드맵 제시...2050년까지 5000만톤 생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5일(현지시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청정 수소 연료(clean hydrogen fuel)를 5000만 톤(metric ton) 생산하는 청사진을 제시했음
- 이 계획이 실행되면,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그때까지 현재보다 10% 줄어듬
-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청정 수소는 탄소 제로 기술 분야에서 스위스 아마 나이프(꼭 갖춰야 할 필수품)와 같고, 잘 되면 이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 그랜홈 장관과 알리 자이디 백악관 기후 변화 고문은 오는 9월까지 미국 내 '수소 허브'를 선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자이디 고문은 탄소 허브가 수소 연료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3.06.06) 국기연 특파원

3. 日 수소에너지 전략 6년 만에 개정..."2030년엔 가격 3분의 1로"

- 일본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수소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향후 15년간 민간 공동으로 15조엔(약 14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음
- 7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수소 기본 전략을 6년 만에 개정했음
- 일본 정부는 새 전략에서 전기분해 시설 등 수소 생산을 위한 장비 공급을 늘려 현재 1m³당 100엔인 수소 가격을 2030년 무렵까지는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30엔으로 낮추고, 2050년에는 20엔까지 내려가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 이를 위해, 민간 합동으로 15조엔이 투자되도록 할 계획임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2040년 수소 공급량이 현재의 약 6배인 1천20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연합뉴스, 2023.06.07) 경수현 기자

1. “그린에너지·오픈이노베이션·글로벌라이제이션 주목해야”

- 한국 내의 포춘 500 글로벌 기업들이 수소·원전·오픈이노베이션·글로벌라이제이션 등을 미래 기업 대응 전략으로 강조했다
-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은행은 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포춘 500 오픈이노베이션 라운드테이블 (Fortune 500 Open Innovation Roundtable)’을 개최하고, 글로벌 대기업 9개사와 산업별 현황 진단과 개별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BP의 소피아 나두르 파트너는 향후 ▷수소 및 재생 에너지 ▷바이오 연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이 유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핀란드 국영 에너지기업 포르툼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확보 및 저탄소 로드맵 시행에 원전 에너지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HP 임원은 스타트업들은 해외 시장과의 접점을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진출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신문, 2023.06.02) 김영채 기자

2. 글로벌 RE100 쟁결음…정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 정부가 RE100 참여 확산과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과정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기업으로 해소에 나섰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이 마련될 방침임 정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2분기까지는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공업용수 공급과 산단 입주요건 합리화에 각각 1500억원, 470억원 투자를 뒷받침해 공장증설도 지원하며, 수·출입 기업의 인증이나 신고 절차를 완화해 관세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데일리, 2023.06.07) 이지은 기자

3. 환경부, 녹색기업·친환경 설비투자 정책 융자금리 최대 2%p 낮춰

-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한 정책 융자 금리를 낮추기로 함에 따라 올해 녹색기업의 이자부담이 총 105억원 가량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3700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사업과,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금리가 7일부터 최대 2%p 인하됨
- 이번 금리 인하 추진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7일부터 기존 정책금리 대비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2023년 2분기 금리 기준(변동금리 적용) 기존 3.56%에서 2.56%로 인하됨
- 이 중에서도 친환경설비투자 융자를 지원받는 기업 중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개선하는 기업은 추가로 1%p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 총 2%p의 혜택을 받고, 해당 기업들은 1.56%의 금리를 적용받게 됨

(아시아투데이, 2023.06.06) 이정연 기자

1. 월마트, 온라인 주문 종이포장으로 전환

- 월마트가 폐기물을 줄이고 온라인 및 옴니채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현재 플라스틱으로 배송되는 거의 모든 주문을 재활용 가능한 종이 가방으로 전환하기로 했음
- 또 고객이 온라인 주문을 받아 일회용 비닐봉지를 선택하거나 온라인상 여러 품목을 더 적은 상자로 통합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포함됨
- 이에 더해 고객 주문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를 만드는 '적당한 크기의 포장기술'로 전환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대형상자 폐기물을 최대 26%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음
- 포장뿐만 아니라 월마트는 AI를 활용해 배송에 사용되는 마일리지와 박스 수를 줄이기 위해, 배송센터가 아닌 매장에서도 온라인 주문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단일 배달 경로에서 여러 주문을 결합하고, 전기밴을 사용한다는 계획도 밝혔음

(ESGToday, 2023.06.02) Mark Segal 기자

2. 애플루트, 영국 슈퍼마켓에서 종이기반 병 시험 출시

- 애플루트 보드가가가 전통적 유리병에 비해 탄소발자국이 낮고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종이기반 병의 시험판을 영국에서 출시했다고 밝혔음
- 이 종이병은 세계적인 주류회사가 매장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는 첫 번째 사례로, 57% 종이로 만들어졌으며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이 통합되어있어서, 일반 가정용 폐기물을 통해 소비자가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함
- 파보코라는 종이병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파보코는 2019년 시작된 회사로 코카콜라, 칼스버그, P&G, 로레알 등과 포장 지속가능성을 공동으로 개선하는 기업임
- 한편 애플루트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제품, 바이오 기반 병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ESGToday, 2023.06.02) Mark Segal 기자

3. 독일, 티센크루프에 2조7800억원 지원...친환경 철강공장 건설 촉진

- 독일 정부는 티센크루프의 탈탄소화 철강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 20억 유로(약 2조7800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음
- 티센크루프 본사가 있는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도 7억 유로(약 9777억 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독일 산업부 대변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로버트 하벡 경제부 장관은 티센크루프의 노사 대표들과 만나 보조금 문제를 논의했고 티센크루프 최고경영자 미구엘 로페즈는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음
- 티센크루프는 수소를 이용한 철강 생산전략(tkH2Steel)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직접환원제철(DRI) 공장을 가동하여 연간 250만 톤의 친환경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할 계획임

(글로벌이코노믹, 2023.06.08) 김진영 기자

1.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 글로벌서 인정받았다

- SK에코플랜트 자회사 싱가포르 테스(TES-AMM)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음
- 4일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 테스가 '2023 SEAL 지속가능 비즈니스 어워즈(Sustainable Business Awards)'에서 '지속가능 혁신(Sustainable Innovation)' 분야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음
- 테스는 '지속가능한 폐배터리 관리' 노력과 저탄소 습식제련 · 회수금속 회수율 90% 이상의 고효율 재활용 공정 등 혁신기술 발굴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지속가능 혁신' 분야 수상의 영광을 안았음
- 테스는 폐배터리 회수부터 재활용 및 폐배터리 활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 등 전 부문에 걸친 솔루션을 갖추고 있으며, 2022년 미국 '에디슨 어워즈(Edison Awards)', 2020년 영국 '로이터 사회적 책임 기업 어워즈(Reuters Responsible Business Awards)' 등 다수의 국제상을 받은 바 있음

(이투데이, 2023.06.04) 문현호 기자

2. 카카오, 환경기여 지표 '카카오 카본 인덱스' 공개

- 카카오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용자 환경기여 지표인 '카카오 카본 인덱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음
- 카카오 카본 인덱스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친환경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카카오는 지표 공개와 동시에 이용자들의 환경 인식 전환과 동참을 위한 캠페인과 프로모션을 진행할 방침임
- 카카오 카본 인덱스는 카카오T 전기택시와 바이크 이동, 카카오페이-카카오톡 전자문서, 카카오메이커스 업사이클링 등 카카오를 통한 이용자 친환경 기여 활동을 수치화했음
- 인덱스의 단위는 KUC(Kakao Users' Carbon-reduction)로 지난해 카카오 이용자는 총 6,300만KUC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와 사회적 간접가치에 기여했으며, 이는 소나무 약 40만 그루의 탄소 흡수 기여량에 준하는 수준임

(IT비즈니스, 2023.06.06) 오현식 기자

3. 현대차, 태국 전기차 공장 설립 추진...8월 新정부와 협상 본격화

- 현대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 입지 확대를 위해, 태국에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현대차는 현재 현지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공장 설립 포함 다양한 투자 지원 프로젝트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 프로젝트로 이뤄지는 만큼, 오는 8월 초 예상되는 상·하원 합동 총리 투표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신정부와 조율할 내용 정리도 병행하고 있음
- 현대차의 이번 현지 공장 설립 추진은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무엇보다 중국 브랜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됨
- 현지 전기차 시장 잠재력이 높은 평가를 받는 가운데,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빠른 속도로 시장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임

(더구루, 2023.06.07) 윤진용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6.02(금) ~ 2023.06.08(목)

제공일시 2023 06 1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미국 100페이지 청정수소 전략로드맵, 일본 140조 수소 투자해

-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 수소 전략과 로드맵(U.S. National Clean Hydrogen Strategy and Roadmap)을 발표했다고 환경리더(Environmental leader)가 5일(현지 시각) 보도했음
-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청정 수소의 생산, 처리, 배송, 저장 및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임.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로드맵의 계획이 실행되면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현재보다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 로드맵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다른 미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발한 전략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2035년까지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의거하고 있음
- 전략 및 로드맵은 청정 수소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탈탄소화 도구로 채택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음. 즉, ▲청정 수소에 대한 전략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용을 목표로 하고 ▲청정수소 비용 절감 ▲지역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임
- 청정 수소 전략과 로드맵은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 광범위한 수소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합하도록 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초안 형태로 공개됐음. 이번에 공개된 최종 버전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전 반, 산업, 학계, 비영리 부문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주, 지방 정부의 피드백을 반영했음
- 이 로드맵에는 2023년 3월 미 에너지부의 보고서(Pathways to Commercial Liftoff: Clean Hydrogen)에 대한 연구 결과도 포함됐으며, 최소한 3년마다 업데이트될 예정임
- 또한, 미 에너지부는 청정 수소로 인해, 에너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수만 개의 새롭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수소가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미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미국 제조업 붐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전략 및 로드맵에 의하면, 미국 내 청정 수소 생산 수요가 2030년까지 1000만 미터톤(MMT), 2040년까지 연간 2000만 미터톤, 2050년까지 연간 5000만 미터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 제니퍼 그랜홀름(Jennifer Granholm) 미 에너지부(DOE) 장관과 백악관 기후 변화 고문 알리 자이디(Ali Zaidi)는 올 9월까지 미국 내 수소 허브를 선정한다고 밝혔음. 자이디 고문은 “(탄소포집단지가 있는) 탄소 허브가 수소 연료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미국의 제품 생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랜홀름 장관은 “중장비 산업과 교통 분야처럼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분야도 탈탄소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또한, 그랜홀름 장관은 2030년 이전에 미국에서 청정 수소 관련 일자리가 약 10만 개 생길 것이라고 말했음

[\(임팩트유, 2023.06.08\) 홍영표 기자](#)

- 한편, 미국이 청정 수소 전략과 로드맵을 5일 발표하자 일본정부도 수소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기본전략을 6일(현지시각) 개정했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7일 보도했음
- 니혼게이지아신문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15년간 민관이 15조엔(약 140조원)을 투입,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임. 또한,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2030년까지 수소 가격을 현재 3분의 1정도까지 낮추고 보급을 뒷받침할 계획임
- 이를 통해 현재 m³당 100엔(약 933원)인 수소 가격을 2030년 30엔(약 280원), 2050년에는 20엔(약 187원)까지 낮추기로 했음. 또 수소 기본 전략을 통해 물을 전기 분해하고 수소를 만드는 전해조 장치를 30년까지 일본 기업에서 15기가와트(GW) 정도 도입하는 목표를 설정했음
- 일본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와 암모니아를 차세대 에너지로 선정한 바 있음.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보다 네 배 비싼 가격 때문에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 때문에 LNG와 석탄 등 기존 연료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차액금을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음